

일본 관련 출판 통계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산출의 필요성 절실

96년도 번역도서 출간 중 일본의 책을 옮긴 것은 약 30% 정도. 이는 미국 33%에 이어 두번째로, 두 나라에 대한 번역물의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출판정책자료집 1997》(문화체육부)에 따르면, 96년 출간된 번역도서는 4,834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본 국적을 가진 저자의 책을 번역한 것은 1,496종으로 전체의 30.9%를 차지한다. 이는 33.3%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 국적 저자의 책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표1>

국가별 외국도서의 수입추천 현황에서도 일본 책은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입하는 일본 책의 종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 수입도서 중에서 일본 책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94년 31.3%였던 것이, 95년에는 27.8%로, 96년에는 다시 23.6%로 매년 4% 정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번역이나 원서의 수입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도서의 공식적인 통계는 이 정도다. 저작권 계약 통계는 나라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자료로는 번역서의 나라별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출판계의 활로 개척을 위해 유통구조를 개혁하는 일도 급선무이지만 다양하고 정확한 출판통계의 산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래야 주먹구구식의 출판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 일문학자의 작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양대 일어일문학과 윤상인 교수(42)의

국적	발행종수	구성비(%)
미국	1,608	33.3
일본	1,496	30.9
영국	811	16.8
독일	277	5.7
중국	218	4.5
프랑스	132	2.7
러시아	83	1.7
이탈리아	62	1.3
기타	147	3.1
계	4,834	100

<표1> '96 번역도서 국적별 현황 (출판정책자료집1997) (문화부) 27쪽, 비율 순으로 재구성.

논문 <해방후 일본문학 번역현황에 관한 연구>는 일본문학 수용의 왜곡된 실상을 잘 보여준다.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인 윤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해방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단행본 또는 잡지 지면을 통해 국내 소개된 일본문학작품은 모두 2,261편이다. 이 가운데 70%를 넘는 1,600여편이 흥미본위의 대중소설이다. 또한 본적문학의 경우에도 특정 작가에게 편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일본 문학의 편식 수용실태는 많이 번역된 작가 랭킹 '베스트 10'을 통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1위는 238편(중복 번역 포함)이 번역된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2위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6위 미시마 유키오는 유명세를 등에 업고 빈번하게 소개된 경우. 가와바타와 미시마가 90년 이전에 집중 번역된 대표적인 작가라면, 90년대에는 무라카미 하루키(7위)와 오에 겐자부로(5위)가 단연 으뜸이다. 특히 오에의 작품 번역은 9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폭주했다. 8위와 10위를 차지한 모리무라 세이치와 마쓰모토 세이쥬는 추리소설작가이고, 9위에 오른 엔도 슈사쿠는 《침묵》으로 잘 알려진 종교소설작가이다. <표2>

품은 많이 들어가지만, 표시 안하는 일이 통계산출 작업이다. 실업대책이 갈팡질팡하는 원인의 하나가 어렵 짐작 수준에 있는 실업자수 파악에 있고 보면, 정확한 통계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여기에는 출판계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최성일>

작가	작품수(편)
미우라 아야코	238
가와바타 야스나리	112
이노우에 야스시	66
아쿠다가와 류노스케	66
오에 겐자부로	61
미시마 유키오	56
무라카미 하루키	51
모리무라 세이치	51
엔도 슈사쿠	42
마쓰모토 세이쥬	41
∴	∴
계	2,261

<표2> 1945~1997 일본 문학 작품 번역통계. *확정된 숫자는 아님.

일본학 연구의 '메카'

한림과학원 '일본학 연구소'

94년 문을 연 한림과학원 '일본학 연구소'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로, 국제심포지엄과 공동 프로젝트 등 심층 연구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



춘천 한림대에 있는 '일본학 연구소'.

호반의 도시 춘천에는 일본학 연구의 '메카'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94년 3월 한림대에 문을 연 한림과학원 일본학 연구소가 그것으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학 연구 센터를 만들겠다"는 고 윤덕선 한림학원 이사장과 일본 동경여대에서 정년퇴임한 지명관 교수가 뜻을 모아 설립했다.

현재 지명관 교수(74)가 소장으로 재직하고 최영희·김우택·차홍봉·서정완·김영명·남근우·윤재선 한림대 교수, 김진만·임순만 객원교수, 허구치요코(口容子) 연구원 등 연구위원들이 사안별·분야별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1세기 동북아시아 국제교류의 한국적 거점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왕성한 연구활동과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명관 소장은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적대감이나 우월의식을 가졌던 것은 불행한 역사에서 기인한다"며 "그러나 이제는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일본학 연구소가 새로운 한일관계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일본학 연구소의 활동은 크게 국제심포지엄을 통한 학술교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도서관 및 자료수집 등으로 나뉜다. 먼저 95년 11월에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일협력 체제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회 한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힐튼호텔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시장경제와 전통'이라는 주제로 제2차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이 심포지엄에는 한일 양국의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까지 폭넓게 참가를 신청해 민간학술교류의 장으

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학 연구소는 두개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95년부터 10년 계획으로 '근대 조선 지식인의 민족어(民族我) 형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국의 근대 지식인이 일본의 지식인들과 접촉하면서 어떻게 민족적 자아를 형성했는가를 탐색한다. 또한 96년에는 교육부로부터 해외지역연구 중점연구소로 지정받아 99년까지 '일본의 지방과 지방도시에 대한 종합적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국제적 수준의 학술논문들을 한국어·영어·영어 등으로 수록한 《한림 일본학 연구》를 연 1회 발간하고, 내년에는 일본의 이와나미 서점과 제휴해 계간지 《사상과 사상사》(가제)도 창간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학술활동 외에도 일반대중을 위한 계몽적 성격의 도서도 발간하고 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일본학자들의 일본에 대한 연구성과를 문고본으로 펴내는 <일본학 총서>와 <일본 현대문학 대표작선>을 소화출판사에서 펴내고 있다.

한편, 일본의 각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약 1만여권의 도서를 기증받아 연구에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 10만권의 도서가 확보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학 도서관도 설립, 운영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지명관 소장은 "일본학 연구소는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지적 재산을 공유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다.

— 박천홍 기자